

삶의 지혜

사람은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어하며, 의지하려고 한다. 우리는 그들을 영적 지도자로 부르기도 하고 멘토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은 학문적으로나 종교적 믿음으로나 사회적 활동이 뛰어난 공인들이며, 많은 존경을 받는 분들이다. 하지만 삶의 가치란 어떤 수치로 객관화할 수 없는 다양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므로 공식으로 정론화할 수 없는 한계성이 있다. 가끔은 여행을 하거나 주변에서 우연히 만나는 노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그들의 오랜 삶을 통한 실존적 경험을 바탕으로 들려주는 삶의 지혜에 깊은 감명을 받곤 한다. 때로는 말 잘 하는 부흥사나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버린 성직자의 그렇고 그런 설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울림이 있다.

칼 필레머 교수가 쓴 <내가 알고 있는걸 당신도 알게 된다면>이라는 책을 소개한다. 코넬 대학교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이자 인간 생태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쓴 이 책은 2012년, 20주 연속 아마존 베스트 셀러, <라이브러리 저널>의 '2011년 최고의 책' 세계적인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의 '2012년에 읽은 최고 감동적인 책'으로 선정된다. 2006년 칼 필레머 교수는 "왜 우리는 여전히 불행한가?"라는 의문에 답을 얻기위해 '코넬대학교 인류 유산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념비적 연구를 5년이상 지속한다. 그는 인생의 모든 길을 직접 걸어본 사람들의 축적된 경험과 조언이야말로 우리 세대가 물려받아야 할 가장 빛나는 정신적 유산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1000명이 넘는 70세 이상의 각계각층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통찰력있는 질문과 인터뷰, 여러 사회과학적 도구를 이용한 검증을 통해 이 책을 쓴다. 그들이 인생의 현자다. 그들을 통한 8만년의 삶, 5만년의 직장 생활, 3만년의 결혼생활을 지켜오면서 얻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30가지 지혜>를 선물한다. 우리에게 남은 세월동안 삶의 함정에 빠질 때, 혹은 어려운 기로에 서게 될 때 좀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 줄 것이다. 이 책은 여섯 장르로 나누어 각 장르마다 5가지 조언을 들려준다. 행복한 결혼 생활, 만족스런 직업, 건강한 자녀 양육, 두려움 없이 나이들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인생의 현자처럼 살기 위한 각각의 5가지씩의

조언등, 1 천명의 70 세 이상 된 노인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되는 자신들의 삶을 들려준다. 지면상 첫번째 장르만 요점을 정리해 본다.

<아름다운 동행> - 잘 맞는 짝과 살아가는 법 :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5 가지 조언.

1. 비슷한 사람과 결혼하라 : <끌림보다는 공유.> 가장 핵심적인 가치관과 배경이 비슷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의 태도나 가치관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마라.
 2. 설렘보다 우정을 믿어라 : <평생의 친구를 찾아라.> 평생 한 사람과 살다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열정은 변하기 마련이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깊은 우정을 느끼는 사람과 결혼하라.
 3. 결혼은 반반씩 내놓는 것이 아니다 :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라.- 상대는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다.> 부부관계가 늘 50 대 50 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태도를 버려라. 내가 준 만큼 정확히 받을 수 없다. 성공의 비결은 늘 얻는 것보다 더 많이 주려고 서로 노력하는 것이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두사람 모두 상대에게 항상 100 퍼센트 이상을 주는 것이다. 그것은 객관적인 수치가 아니라 내 마음가짐이다.”
 4. 대화는 두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다 : <뭐 어때, 고작 싸웠을 뿐인데.> 고집세고 과묵한 것은 관계에 치명적일 수 있다. 오랫동안 부부로 지낸 이들은 모두 수다쟁이다, (최소한 한 사람만이라도 말을 많이 해야 한다.)
 5. 배우자와만이 아니라 결혼과도 ‘결혼’한 것이다 :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결혼관에 충실하고 그 개념을 진지하게 생각하라. 당장 필요한 것보다 결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
- 현명하게 싸우는 법 : 첫째, 논쟁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함께 집 밖으로 나와라. 둘째, 먼저 화를 풀 방법을 찾아라.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라. 세째, 위험요소는 없앤다. 상처주는 말이나 비웃는 말을 하지마라. 네째,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 꼭 기억해야 할 것 : <화난 채 잠자리에 들지 마라>. “잠자리에 들 때는 반드시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이를 부득부득 감면서 말해도 괜찮아요. 꼭 말한대로 될 겁니다. 밤새 무슨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거듭 말하지만 사람 사는데 정론은 없다. 다만 많은 현자들이나 인생의 선배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는 충고라면 귀담아 새겨들 필요가 있다. 중학교 시절 때 중국(대만)의 ‘임어당’이라는 철학자가 쓴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이 인기 있었다. 어린 나이에 삶의 고난을 알리 만무하니 별 감동없이 읽었다. 하지만 이제는 산전수전 다 겪은 육십이라는 나이가 되다 보니 유식하고 잘 난 사람이 되는 것 보다는 모가 덜 나고 유순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 책에도 <거울을 보지 말고 창 밖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내 자신만이 아닌 타인을 보라는 것이다. 이제는 고전이 된 임어당의 <생활의 발견>도 다시 구해 읽어 보고 싶다.